

초자아의 종교적 이미지

-〈까마귀〉를 중심으로

이경호 *

지난 해 10월 〈한겨레〉 신문에 실린 짧은 문학칼럼에서 김윤식은 김현승 시세계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다형의 시세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 일 법한 그 글에서 김윤식이 제시한 관점이란 다형의 시세계에 구현되고 있는 “절대고독”이 기독교적 사유에서 출발하였더라도 결정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윤식은 그러한 근거로 기독교적 인식이 신과 인간의 변증법이 아니라 죄와 신앙의 변증법을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148)[필자 주: 괄호 속 앞의 숫자는 인용문헌을 지시하고 뒤의 숫자는 페이지를 지시한다]. 김윤식은 다형의 시세계가 죄와 신앙의 변증법을 다루지 않는 증거로 〈인간은 고독하다〉라는 시작품의 7,8연의 내용을 예로 들고 있다.

신앙을 가리켜 그러나 고독에 나리는 축복이라면
깊은 신앙은 우리를 더욱 고독으로 이끌 뿐,
내 사랑의 뜨거운 피로도 너의 전체를 속일 수는 없구나

추상으로도 육체로도
용해되지 않는,

* 문학평론가

오오, 너의 이름은 모든 애정과 신앙을 떠나
 내 마음의 왕국에서 자유와 독립을 열렬히 갈구하는구나

이 작품에서처럼 “신앙”이 “고독에 나리는 축복이라면” “고독”은 인간의 원죄의식이며 “신앙”은 신에 의한 죄의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를 고독으로 이끌 뿐”이라는 구절 속에서 신의 존재적 가치인 구원에 대한 회의를 엿볼 수 있다. 김윤식은 다형의 시세계에서 이러한 맥락을 “고독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다”(1:146)고 규정해 버린다. 그리고 “신앙을 떠난 고독”이 “죄와 신앙의 변증법”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이다. 다형의 고독에 대한 자세 속에는 분명히 고독을 절대화하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죄와 신앙의 변증법”이라기보다 죄의식의 신앙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김윤식의 말대로 “인간적 사변으로부터 고독의 분리를 시도한 것이 소위 이 시인의 ‘견고한 고독’”(1:148)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한 고독에의 집념이 기독교적 신앙과 대립하거나 기독교적 신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실제로 위의 시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는 기독교 신앙을 회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연관된 다형 시세계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유년기부터 시작된 기독교 신앙과 그것에 대한 회의과정을 거쳐 다시 그것으로 돌아올 때 까지 그의 삶과 시세계에 일관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다. 그 대상은 무엇보다도 그의 종교적 죄의식과 고독에 대한 집념과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까마귀’이다. 그의 삶과 시세계에서 ‘까마귀’라는 대상이 주목되는 까닭은 그것이 시인의 초자아를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종교적 구원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형의 시세계에 관한 무성한 논의의 중심에 김윤식처럼 ‘고독’의 주제

가 자리 잡고 있으며, 김윤식과는 달리 그 주제를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한 논자들도 있다. 어느 쪽의 관점이건 다형의 시세계가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근거로 ‘고독’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왔음을 부정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윤식이 지적하고 있듯이 다형의 다음과 같은 산문에서 우리는 기독교사상보다 좀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인간 정신을 구현하려는 다형 시세계의 입장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나의 시는 아무래도 기독교의 신을 상대로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나가기 쉬울 것 같이 나 자신이 느낀다.…… 그러한 나는 또한 신앙에 순응하기만 하는 시인은 아니다. 인간인 내재적인 것과 신의 초월적인 것이 나의 시 안에서…… 회의와 반항과 갈등과 이해와…… 정상적인 신앙과는 자못 용모가 다른 추구의 세계를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1:152)

‘고독’이라는 주제와 ‘까마귀’라는 대상이 맺는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인 스스로 ‘까마귀’에 대한 유난스런 애정과 그것이 그의 시세계와 맺는 관계를 언급한 산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형은 〈겨울 까마귀〉라는 산문에서 “내가 여러 새들 중에서도 까마귀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릴 적 내 고향에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2:35-36)는 고백을 한 바 있고, “나는 표현에 있어 언어라는 것의 기능에 회의를 품은 지 오래이다. 나이를 먹고 시가 늘수록 이 회의는 더욱 짙어지고 까마귀의 외마디 울음소리보다도 못한 나의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빛깔을 억누른 검은 빛깔로 저 자신을 두르고,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거친 소리로 울고 가는 광야의 시인, 저 까마귀의 소리를 귀 기울여보라! 모든 새들의 지저귀는 육체의 소리로 끝나지만, 모든 새들의 빛깔은 생명의 기쁨만을 노래하지만, 주검의 빛깔을 두르고 주검을 노래하는 새”(2:38)라는 규정도 내린다. 그의 ‘까마귀’에 대한 애착이 유년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

고 ‘까마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시로 노래할 때 언어에 대한 회의와 주검에 대한 의식이 떠오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1975년에 쓴 산문 〈겨울방학〉에서는 “까마귀들은 어딘가 영혼과 슬픔과 괴로움에 속하는 새들인 것 같다”(2:18)는 생각도 펼쳐 보이고 “형벌을 검은 몸둥이에 이고 가는 듯한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2:18)는 고백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글들이 모두 그가 다시 기독교의 신앙에 귀의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까마귀’를 통해서 시인의 삶은 김윤식이 지적한 “죄와 신앙의 변증법”의 구도 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그의 시세계를 기독교 신앙과 소통시켜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과 연계된, 바꾸어 말해서 신의 구원과 연계된 ‘까마귀’의 구체적 속성을 그의 시세계에서 찾아내기는 어렵다. 어쩌면 ‘까마귀’의 상징은 그의 시보다 그의 삶을 신앙과 매개해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신앙과 매개해놓는 ‘까마귀’의 속성, 유년의 고향에서부터 그의 곁에 머물며 영혼의 새, 슬픔과 괴로움의 천형, 그리고 그의 시세계에서 언어에 대한 회의를 일깨우고 고독과 주검을 연상하게 만드는 ‘까마귀’의 존재는 그에게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유년시절에 그의 가족을 통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초자아’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형의 성품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시세계에 반영되어 있는 종교적 ‘초자아’의 흔적을 살펴보려면 다음과 같은 유년시절의 회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는 기독교 신교의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배웠고, 현세보다 내게가 더 소중함을 배웠다. 신이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내려다보고 인간은 그 감시 아래서 언제나 신앙과 양심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꾸준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아마도 비교적 단순하고 고지식한 데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나이가 먹은 뒤에도 이 신앙과 양심과 도덕을 끝이끝대로 믿고 지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양심의 명령을 좇는 행동을 나는 가장 값있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2:201-202)

이와 같은 회상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초자아’가 압도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는 ‘심판’에 대한 인식, 신의 ‘감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에 대한 집착으로 대표된다는 점이다. 다형은 같은 산문에서 자기는 “성선설에 입각한 생활이 아니고 원죄설에 뿌리박은 생활”(2:201)을 지켜가고 있다는 고백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사항으로 미루어 그의 유년시절에 형성된 초자아는 기독교의 원죄의식이 뿌리를 이루는 양심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양심은 그가 기독교 신앙을 회의하던 시절에도 그의 내면과 일상을 장악한 정신적 가치였음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나는 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을 부정할 수 있으면서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명령하고 있는 양심은 부정할 길이 없다.…… 양심은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신성에 가득차있다.……모든 면에서 나로부터 추방을 당한 신이 나의 양심이라는 최후의 보루에서 나에게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 거점을 점차로 확대하여 그의 실지를 나의 내부에서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2:211)

원죄의식과 더불어 양심이 그의 윤리적 초자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최후의 보루’로 삼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까마귀’의 이미지도 그러한 의미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까마귀’의 검은 몸 색깔이 원죄의 식이나 양심과 연루된 저주와 죽음의 뜻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러한 몸의 색깔에서 영혼의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단서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형은 원죄의식이나 양심과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에게 그러한 근거는 삶의 초월적이거나 근원적인 윤리성으로 인정된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까마귀’는 양심이라는 윤리적 “신성”을 그의 삶과 시세계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형이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고 임종하던 1975년에 발표한 <마지막 지상에서>라는 시작품에 나타나는 ‘까마귀’의 모습이 그러한 윤리적 “신성”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암시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문형으로 끝나는 “나의 녀”이 ‘까마귀’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평안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은 이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원죄의식과 양심으로서의 ‘초자아’를 표상하는 ‘까마귀’의 정체는 몸 색깔보다 울음소리에서 다형 시세계의 의미심장한 속성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저귀어도
아무리 구슬프게 울어 예어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모든 소리는 소리로만 끝나는데,

겨울 까마귀 찬 하늘에
너만은 말하며 울고 간다.

목에서 뗏다
뼈에서 우러낸 말,
중에서도 재가 남은 말소리로
울고 간다.

저녁 하늘이 다 타버려도
내 사랑 하나 남김없이
너에게 고하지 못한

내 뼈 속의 언어로 너는 울고 간다.

-〈산까마귀 울음소리〉

앞에서 인용한 산문 〈겨울 까마귀〉에서 다형은 ‘까마귀’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목소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표현에 있어 언어라는 것의 기능에 회의를 품은 지 오래이다”라는 고백이나 “까마귀 외마디 울음소리보다도 못한 나의 시”라는 규정,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까마귀의) 거친 소리”라는 표현도 모두 시적 언어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형의 시세계를 언어적 표현과 연계시킨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김종길과 김우창의 지적이 있습니다. 김종길은 다형의 시에 “딱딱한 한자어”가 많고 “단단한 물체를 가리키는 말들”이 많은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지적은 견고한 이미지에 대한 지적보다 “그의 시의 경도(硬度)는 이러한 시어나 이미지의 경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어와 이미지를 포함한 그의 시적 사고 전반에서 연유하고 있다”(3:356)는 지적이다. 견고한 시어나 이미지가 견고한 시적 사고와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 속에서 우리는 다형의 감정을 배제하고 관념을 응축하여 표현하려는 욕망을 읽어낼 수가 있다. 김우창은 다형의 초기시와 후기시의 시어가 갖는 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초기에 있어서 김현승 씨는 감각경험의 극명함을 통하여 명징한 정신자세를 수립하려 하였다. 근년의 윤리기에 있어서 그의 관심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명징한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람과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일체의 인위적인 왜곡, 초기에 노래되었던 감각과 감성의 개입까지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4:246)는 것이다. 후기시의 변화에서 감각이나 감성의 개입을 “일체의 인위적인 왜곡”으로 다형이 판단했다면 그것은 시어의 표현법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가

있다. 다형이 추구하는 시어의 표현법은 〈산까마귀 울음소리〉라는 작품에서 “뼈 속의 언어”로 규정된 바도 있다. 그것은 다형이 〈겨울 까마귀〉라는 앞의 산문에서 밝힌 대로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거친 소리”인 셈이고 바로 ‘까마귀’의 울음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다형의 언어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그 나름의 언어 표현법, 감성을 억제하고 관념에 경사된 언어적 표현들이 시 쓰기의 미학적 성취를 이룩해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이나 이미지즘, 그리고 릴케의 영향을 짐작하게 하는 초기시편에서는 김우창도 지적했듯이 시의 언어 표현법은 정서와 관념을 포괄하여 감각의 구체성을 확보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견고한 고독’이나 ‘절대 고독’을 지향하는 중기시편에서부터 그의 시들은 “감각 경험의 극명함”을 떨쳐내고 관념을 직접 토로하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한다. “감각 경험의 극명함”을 추구하는 자세는 묘사적 비유와 수사적 언어에 대한 욕망과 신뢰를 간직하기 마련이다. 그의 후기시가 “초기에 노래되었던 감각과 감정의 개입까지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사적 언어에 대한 회의를 시인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로 풀이된다. 수사적 언어장치는 궁극적으로 경험의 구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적 언어를 기피하려는 태도는 삶의 구체적 현실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려는 욕망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다형의 중기 시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을 회의하는 존재가 삶의 현실로부터 삶의 내면으로 고립되는 자세를 암시해주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은 존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세계의 가치와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서구의 근대문학이 자연과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하고, 그 결과 ‘내적 공허감’에 사로잡힌 ‘주관주의’를 보여준 것(5:8)과 대비될 만한 고립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고립의 자세는 ‘초자아’의 한 형태인 ‘내사(internalisation)’와도 흡사해 보인다. “대상 상실의 자아 상실로 변화”되는 것이 ‘내사’인데 “그 의도는 타자의 상실에 대한 진짜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상을 잃지 않게 되고, 따라서 애도도, 포기도 없다 실제로 대상은 자기 안에 편입되어 계속 유지되며, 고통과 징벌을 받으며 통제당하는 것이다”(6:54). 다형의 중기 시에서 기독교 신앙이 상실되는 경험은 이러한 ‘초자아’의 ‘내사’ 과정과 유사한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 신에 대한 회의나 부정이 자기 자아에 대한 회의나 부정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형의 중기 시에서 원죄에 대한 의식이나 양심에 대한 의식이 ‘절대고독’이나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표현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측면을 짚어낼 수가 있다.

다형 김현승 선생이 임종하시던 해의 2월 《현대문학》에 발표한 〈마지막 지상에서〉에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복귀한 후 시의 제목처럼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까마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산까마귀
긴 울음을 남기고
해진 지평선을 넘어간다.

사방은 고요하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의 뉘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이 작품에는 ‘까마귀’의 배경으로 “그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 “산까마귀”가 날아간 “지평선” 너머의 나라, 그곳은 이승이 아닌 저승의 세계일 것이다. 그곳에는 “뉘”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곳에 있

는 “넋”에게 물어본다. “평안한가”라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다형의 시 세계에 던져볼 수 있다. 그의 시세계는 ‘절대고독’, 또는 종교적 ‘초자아’로부터 벗어났을까? “고요함”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상의 현실은 어떠한 곳일까? 그 현실이야말로 생의 쓸쓸함과 절망조차 개입할 수 없는 ‘절대고독’의 상태가 아닐까? ‘까마귀’의 존재와 목소리가 암시하는 시인의 자아는, 그의 시세계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윤식, 『한국현대시론비판』, 1975, 일지사.
김현승, 『김현승산문집』, 1977, 지식산업사.
『창작과 비평』, 1968, 창작과비평사.
김우창, 『지상의 척도』, 1977, 민음사.
J. Hillis Miller, *The Disappearance of God*, 1975, The Belknap Press, 1975.
프리실라 로스, 이세진 옮김, 『초자아』, 이제이북스, 2004.